

“더 강력한 액션 들고 왔습니다”

영화 '범죄도시3' 마동석

주연·제작 참여...31일 개봉
금천경찰서→서울광역수사대
근무지 바꾸고 스케일 키워
짜릿한 액션 뒤 던지는 유머 재미
8편까지 준비...할리우드 버전 구상

“범죄도시”는 제 연골과 주먹, 그리고 영혼을
같이 넣은 작품이라 제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마동석은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마동석이 주연뿐 아니라 제작과 기획까지 맡은 한국 대표 범죄 액션 영화로, 이달 31일에는 ‘범죄도시 3’가 개봉한다.

“(제 일으로) ‘제 자식이 굉장히 이쁘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니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은 괴력의 형사 마석도를 연기한다. 1~2편에서 마석도는 금천경찰서 강력반 소속이지만, 3편에선 서울 광역수사대로 근무지를 옮겼다. 영화의 스케일도 그만큼 커졌다.

마동석은 3편에서 공을 들인 부분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저를 따라 하지 않는 것”이라며 “‘범죄도시’ 후속편이 전편을 안 따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범죄도시 3’은 전편보다 액션이 많아지고 강도도 세졌다. 마석도의 액션도 입어치기와 같은 주특기 외에도 한 방에 적을 때려눕히는 복싱의 비중이 커진 느낌이다.

마동석은 “스케일을 키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라며 “미사일을 터뜨리고 헬기가 날아야 하는 게 아니라 주먹을 한 방 날려도 얼마나 통쾌하게 느껴지느냐, 그런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객이 마석도에게 열광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첫 번째는 카타르시스인 것 같다”며 “마음속으론 마석도처럼 (강패를) 응징하고픈 마음이 있지만, 법 때문에 인내하는데 (마석도를 보면서) 한풀이가 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강력한 액션 뒤에 또 친근하게 유머를 던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좋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거듭 부탁했다.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의 색깔이 가장 강한 요소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유머일 것이다.

마동석은 “(각본을) 이상우 감독과 저와 작가, 셋이 쓰는데, 코미디 부분은 제가 많이 건드린다. 제가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가 좀 많다”며 웃었다.

마동석만의 액션도 빼놓을 수 없다. 액션 배우는 그의 오랜 꿈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복싱을 배운 것도 영화 ‘복카’를 보고 한 것”이라며 “액션 영화와 복싱은 그냥 제 삶과 같은 것”이라고 털어놨다.

복싱과 액션 연기에 몰두하다 보니 부상도 많았



다. 어깨 수술을 한 뒤엔 팔을 뒤쪽으로 돌리기 힘들어 공 던지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올해 52세인 마동석이 액션 연기를 못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시원해하고 그런 게 기쁘게 봐요, 저는. (웃음)”

‘범죄도시’ 시리즈는 8편까지 준비 중이다. 마동석은 “여덟 편이 다 재미있으리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 것”이라며 “약간 번의 편으로 다른 것도 생각하는 게 있다”고 귀띔했다.

배우이자 제작자인 마동석의 영화 세계는 계속

확장 중이다. 그는 “‘범죄도시’의 할리우드 버전도 구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2년 전 모델 출신 방송인 예정화와 결혼한 마동석은 결혼 생활에 관한 질문엔 “잘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마동석은 ‘등직한 인상’으로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았는데 에피소드가 없느냐는 질문엔 탄성을 했다.

“그런데 지금도 의아한 건 제가 그렇게 험상궂게는 안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연합뉴스

송중기, 데뷔 첫 ‘칸’ 레드카펫 입성

‘화란’ 주목할 만한 시선 초청
조직폭력배 이야기 담은 누아르
관객들, 상영 후 4분간 기립박수

배우 송중기(사진)가 데뷔 1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인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았다.

송중기는 24일(현지시간) 오후 9시께 제76회 칸영화제가 열리는 뤼미에르 대극장 앞에서 공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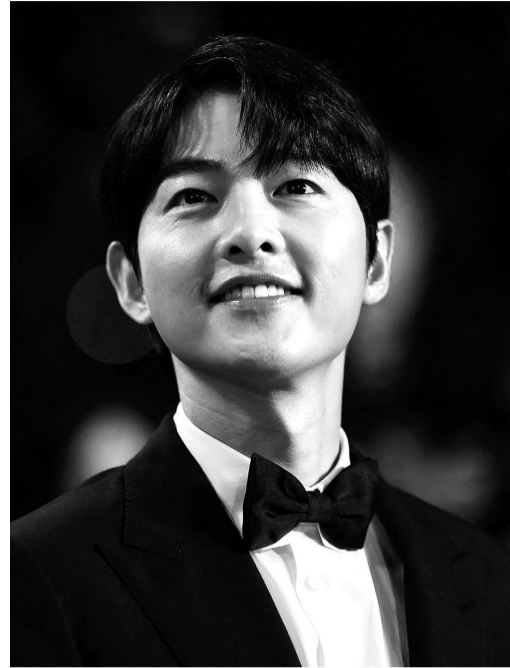
검은색 턱시도 차림으로 나타난 송중기는 영화 ‘화란’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홍사빈·김형서(비비)와 김장훈 감독, 공동제작자 한재덕 사나이픽처스 대표·황기용 하이디움스튜디오 대표와 함께 레드카펫에 올랐다. 이 영화는 칸영화제가 새로운 경향의 작품을 소개하는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다.

‘화란’은 앞서 이날 오전 드뷔시 극장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됐다. 1천여석의 객석은 거의 가득 찬 상태였다.

송중기는 상영 전 김 감독을 비롯해 김형서, 홍사빈 등과 무대에 올라 관객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날 공개된 ‘화란’에는 혈흔이 튀는 폭행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와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응시했다. 몇몇 관객은 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탄식을 내뿜기도 했다.

영화가 끝나자 1·2층에 빼곡히 앉은 관객들은



배우·제작진에게 박수를 보냈다. 장내가 밝아진 후 시작된 기립 박수는 약 4분간 계속됐다.

송중기는 배급사 플러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영화를 보고 나니 대본에서 느꼈던 감정보다 더 깊은 것 같아 만족스럽다”며 “이 영화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란’은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소년 연규(홍사빈 분)가 조직에 발을 들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누아르로, 송중기는 이 조직의 중간 보스 치건을 연기했다.

/연합뉴스

‘로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 별세

1960~80년대 팝 무대 호령...그라미 통산 12회 수상

‘로큰롤의 여왕’으로 불리며 1960~80년대를 풍미한 팝 스타 티나 터너가 별세했다. 향년 83세.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터너의 대리인은 그가 오랜 투병 끝에 스위스 취리히 근처 퀴스나흐트에 있는 자택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티너는 로큰롤 시대의 초창기라 할 수 있는 1950년대에 데뷔해 30여년간 팝 무대를 호령하며 솔(soul), R&B, 록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호소력 짙은 허스키한 목소리에 폭발적인 가창력, 거침없는 무대 공연으로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이혼한 모친을 따라 세인트루이스로 이주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곳에서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 아이크 터너의 밴드 공연을 보러 갔다가 쉬는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띄어 객원 가수로 발탁된다.

아이크 터너는 만화 ‘정글의 여왕’ 주인공 이름 사나에서 영감을 받아 그에게 ‘티나’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1960년 밴드 이름을 ‘아이크 앤드 티나 터너’로 바꿔 듀오 활동을 시작했다. 1962년 두 사



람은 결혼했고, 16년간 함께 활동하며 ‘어 폴 인 러브’ 등 여러 히트곡을 냈다. 하지만 그는 남편에게서 끊임 없는 폭력과 학대를 당했다고 이혼 후 고백했다.

나이도 40대에 접어들어 솔로 가수로 활동하는 데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4년 발표한 앨범 ‘프라이빗 댄서’가 큰 히트를 치면서 재기에 완벽하게 성공한다.

이 앨범의 대표곡 ‘왓츠 러브 갓 투 두 워드 잇’으로 1985년 그라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레코드’ 등 3개 부문, 또다른 수록곡 ‘베터 비 굿 투 미’로 최우수 여성 록 보컬 퍼포먼스상을 받는 등 그 해 그라미를 휩쓸었다.

‘아이크 앤 티나’ 시절 받은 것까지 더하면 그라미에서 통산 12회 수상했고, 음반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1억5000만여 장에 달한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홍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함도그1개 1000원
치즈함도그1개 1500원, 참살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듬,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열, 지압, 뜸, 마사지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멋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월정담벼락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암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을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